

# 韓愈의 “不平則鳴”說에 대한 小考

—〈送孟東野序〉의 내용을 중심으로—

魯 長 時\*

— <目 次> —

I. 서론	1. “不平則鳴”說의 내용
II. “不平則鳴”說의 연원	2. ‘善鳴者’에 대한 분석
III. “不平則鳴”說의 내용	IV. 결론

## I. 서론

韓愈는 儒學復興을 기치로 고문을 제창하고 변려문을 반대하는 古文運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문운동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면서 많은 훌륭한 작품을 남겼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문학이론을 피력한 문장으로 <答李翊書>, <送孟東野序><與馮宿論文書><歐陽生哀辭后><荊潭唱和詩序><答劉正夫書><南陽樊紹述墓誌銘> 등이 있다.

韓愈는 이 작품들을 통해 ‘文과 道의 관계’, ‘文과 현실관계’, ‘文氣說’, ‘文과 修養’, ‘언어의 독창성 문제’, ‘문풍 및 문체개혁’ 등 문학전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文道關係’ 문제에서 문풍과 문체를 개혁하기 위해 復古의 관점에서 ‘文以明道’라는 관점을 제기하면서 六朝時代의 화려한 변려문의 문풍을 반대하였고, 또 맹자의 ‘浩然之氣’와 曹丕의 ‘文以氣爲主’에 바탕을 두고 ‘氣盛言宜’라 하여 文氣說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언어의 운용방면에서 그

\* 영남대학교 동양어문학부 중국어문학전공 특임객원교수

는 또 문장을 짓는 데에 ‘陳言務去’ ‘詞必已出’이라 하여 ‘언어의 독창성’을 강조하였으며, 언어의 표현방면에서는 ‘文從字順’이라 하여 문장의 자연스런 표현을 중시하기도 하였다. ‘文과 현실관계’에 대해서 ‘不平則鳴’이라는 說을 제기하여, 문장은 현실생활에서 쌓여온 ‘불평한 것(不平者), 부득이한 것(不得已者)’을 밖으로 드러낸 것, 즉 현실 활동에서 받은 강렬한 감정을 문사를 통해 표현해낸 것으로 보고서 ‘文以明道’의 이론을 보충하였다.

“마음속에 억제할 수 없는 감정, 즉 불평의 감정을 토로하는 데”에서 좋은 작품이 창작된다는 韓愈의 이 “不平則鳴”의 이론은 창작에는 작가의 곤궁한 상태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작가와 현실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보아야 한다. 韓愈의 이러한 문예사상이 형성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韓愈는 貞元 3년(787년) 20세의 나이로 처음 禮部의 진사시험에 참가하여 실패하면서부터 세 번씩이나 禮部와 吏部 시험에 낙방하였고, 생계를 해결하고자 5년여 동안 汴州와 徐州에서 절도사의 막료를 지내었다. 貞元 18년(802년)에 겨우 이부 시험에 합격하여 四門博士의 직책을 받고 이듬해 監察御使가 되었지만, 그해 다시 陽山縣丞으로 폼적되었다가 元和 元年(806년) 39세의 나이로 權知國子博士로 임명되어 중앙정부로 돌아오기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不遇不平한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겪어온 이때의 일에 대해 “지방의 추천을 받아 진사시험에 참가하여 관직을 구한지 지금까지 모두 20여년이 되었습니다. 운명이 기구하고 불행하여 걸핏하면 참소와 비방을 당하니, 한 치를 나아가면 한 자를 물러나게 된지라 끝내 이룬 것이 없습니다.(應舉覓官, 凡二十年矣, 薄命不幸, 動遭讒謗, 進寸退尺, 卒無所成)”<sup>1)</sup>라고 하였고, “또 시사에도 능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과도 많이 어긋나서 끝내는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어 마침내 發憤하여 문학에 전력하기로 하였습니다.(又不通時事, 而與世多齟齬, 念終無以樹立, 遂發憤篤專

1) 《韓昌黎文集校注》, 卷二 <上兵部李侍郎書> (臺北, 世界書局, 1982)

於文學)”<sup>2)</sup>라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한유는 發憤하여 문학에 전념하고자 하였고, 또 한유 자신의 문학이론과 “不平則鳴”說도 거의 이 기간에 형성되었다. 따라서 한유가 이처럼 곤궁한 처지에서 자신의 생활체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不平則鳴”說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한유의 “不平則鳴”說이 한유의 독창적인 理論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가의 곤궁한 상태가 훌륭한 작품을 낳게 한다는 주장은 전대의 많은 사람들이 언급해왔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한유의 “不平則鳴”說이 실려 있는 <送孟東野序>를 중심으로 “不平則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不平則鳴”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不平則鳴’說의 연원을 밝혀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므로, “不平則鳴”說의 연원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자신의 불우한 조우를 통해 형성된 不平의 문예이론, 즉 “不平則鳴”에 관한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送孟東野序>에서 열거한 각 시대의 대표적인 善鳴者들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분석해보고, 끝으로 魏晉六朝시기의 善鳴者에 대해서만은 유독 한 사람도 거론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도 함께 추론해보고자 한다.

## II. “不平則鳴”說의 연원

좋은 작품을 창작하는 데에는 작가의 곤궁한 상태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즉 작가의 고통스런 처지와 창작활동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不平則鳴”의 理論은 전대의 많은 사람들의 문예이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孔子는 시를 통해서 “可以怨”<sup>3)</sup>, 즉 시로써 사회를 풍자할 수 있다고 하여 시의 사회 효용성을 강조한 바 있고, 맹자 또한 “하늘이 그만한 사람

2) 앞의 책, 卷二, <答實秀才書>

3) 《論語》<陽貨>：“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에게 큰일을 맡기고자 명을 내릴 때면, 반드시 먼저 그의 심지를 괴롭히고 그의 육신을 수고롭게 하여, ……그가 해내지 못하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다.(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曾益其所不能)<sup>4)</sup>”라고 하여 사람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먼저 심한 정신적·육체적 곤경을 겪게 하여 스스로 분발토록 해야 한다고 여겼다.

漢代의 司馬遷은 《史記》自序를 비롯하여 列傳 곳곳에서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그는 먼저 <屈原賈生列傳>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무릇 하늘은 사람의 시초요, 부모는 사람의 근본이다 사람이 곤궁하면 근본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수고로움과 괴로움 그리고 피곤함이 극에 달하면 일찍이 하늘을 부르지 않은 자가 없고, 질병과 비통함 그리고 참혹한 일이 있을 때면 일찍이 부모를 부르지 않은 자가 없었다. 屈原은 道를 바르게 하고 지혜를 다하여 그의 임금을 섬겼지만 참소하는 사람이 그를 이간하였으니 곤궁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신의를 지켰는데 의심을 받고 충성을 다하였는데 비방을 받았으니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屈原이 <離騷>를 지은 것은 대개 원망에서 나왔다.(夫天者, 人之始也; 父母者, 人之本也. 人窮則反本, 故勞苦倦極, 未嘗不呼天也, 病痛慘怛, 未嘗不呼父母也. 屈平正道直行, 竭忠盡志, 以事其君, 讒人間之, 可謂窮矣. 信而見疑, 忠而被謗, 能無怨乎? 屈原之作離騷, 蓋自怨生也.)<sup>5)</sup>

司馬遷은 屈原이 道를 바르게 하고 지혜를 다하여 그의 임금을 섬겼지만 참소하는 사람들이 그를 이간하니 처신하기 난감한 상태, 즉 곤궁한(窮) 상태에 빠졌으며, 신의를 지켰지만 의심을 받고, 충성을 다하였지만 비방을 받아 결국은 그것이 원망이 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離騷>는 바로 이러한 원망에서 지어진 것으로 보았다.

4) 《孟子》<告子章句下>

5) 司馬遷, 《史記》, 卷84

司馬遷은 屈原의 원망이 바로 곤궁함(窮)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곤궁함(窮)’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司馬遷은 말한 ‘곤궁함의 의미란 생활상의 빈곤보다는 오히려 정치상의 실의로 생긴 곤궁한 상태를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의 <太史公自序>를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옛날 西伯은 羨里의 獄에 갇혀 《周易》을 연역하였고, 孔子는 陳·蔡에서 곤욕을 당하고서 《春秋》를 지었다. 屈原은 추방되어 <離騷>를 지었으며, 左丘明은 실명하여 《國語》를 남겼다. 孫子는 다리가 잘리어 兵法을 논하였고, 呂不韋는 蜀에 유배되어 《呂覽》을 세상에 전하였으며, 韓非는 秦나라에 갇혀 <說難>, <孤憤> 편을 썼다. 《詩經》 삼백 편은 대체로 聖賢이 발분하여 지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답답하게 맺힌 바가 있어 자신들의 道를 통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지나간 일을 서술하여 앞으로 올 사람들에게 남겨준 것이다. (昔西伯拘羨里, 演周易; 孔子厄陳蔡, 作春秋; 屈原放逐, 著離騷; 左丘失明, 厥有國語; 孫子膺脚而論兵法; 不韋遷蜀, 世傳呂覽; 韓非囚秦, 說難·孤憤; 詩三百篇, 大抵聖賢發憤之所作也. 此人皆意有所鬱結, 不得通其道也, 故述往事, 思來者.)<sup>6)</sup>

司馬遷은 이 글에서 많은 작가들이 그들이 살았던 당시 사회에서 갖은 박해와 억압을 받아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자신의 道를 펴기 어렵게 되자 마음속에 쌓아둔 것을 이루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가슴속에 얽혀 있는 원분(怨憤)을 펴서 저술하게 되었다는 ‘發憤著書說’을 제기한 것이다. 司馬遷은 <報任少卿書><sup>7)</sup>에서 자신이 쓴 <史記>도 ‘發憤著書’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平原君虞卿列傳><sup>8)</sup>에서도 “우경이 곤궁하여 근심스런 처지가 아니었다면 또한 책을 지어 자신을 후세에 드러낼 수 없었을 것이다(虞卿非窮愁,亦不能著書以自見於後世)”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한 이 ‘窮愁著

6) 司馬遷, 《史記》, 卷130

7) 班固, 《漢書》<報任少卿書>: “草創未就, 會遭此禍, 惜其不成, 是以就極刑而無愠色”

8) 司馬遷, 《史記》, 卷76

書說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司馬遷 이후 南朝시대 문학이론 비평가인 劉勰 같은 사람도 유사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劉勰은 《文心雕龍》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런 문체들이 생겨난 근원을 고찰해보면 바로 울분을 드러내어 뜻을 표현한 것들이다. 몸은 좌절되었지만 도를 닦아 스스로를 위로하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마음을 편안히 하였다. …… 이것이 이런 문장들을 짓게 된 요체이다. (原茲文之設, 乃發憤以表志. 身挫憑乎道勝, 時屯寄於精泰; …… 此立之大要也.)<sup>9)</sup>

사람이 좌절을 겪거나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면 의탁할 곳을 찾아 위로를 받고 싶어진다. 바로 이러한 요인이 ‘發憤表志’하는, 즉 문장을 창작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劉勰은 또 “敬通(馮衍의 字)은 평소 유세하기를 좋아하였지만 결국 盛世에 뜻을 얻지 못하고 불우하게 되니 스스로 <현 지부>를 짓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조개가 상처를 입어야 진주를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敬通雅好辭說, 而坎壈盛世, 顯志自序, 亦蚌病成珠矣.)<sup>10)</sup>”라고 하여 ‘조개가 상처를 입어야 진주를 만들 수 있는 것 蚌病成珠’처럼 작가도 곤궁한 처지를 겪음으로써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작가의 곤궁한 처지와 작품과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한 부분이다.

그런데 韓愈의 “不平則鳴”說은 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司馬遷의 ‘發憤著書’說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司馬遷의 ‘發憤著書’說이나 韓愈의 “不平則鳴”說은 다 文과 현실문제와의 관계를 천명한 현실주의 문학이론이라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할 뿐만 아니라<sup>11)</sup>, 韓愈는 “한(漢)나라 때에는 사마천(司馬遷)·사마상여(司馬相如)·양웅(揚雄) 등이

9) 劉勰, 《文心雕龍》<雜文>

10) 劉勰, 《文心雕龍》<才略>

11) 中國唐代文學學會韓愈研究會編, 《韓愈研究》第一輯, (中州古籍出版社, 1996), 196 쪽

가장 소리를 잘 낸 자들이다(漢之時, 司馬遷·相如·揚雄 最其善鳴者也.)”<sup>12)</sup>라고 하여 司馬遷을 漢代의 대표적 문인의 한 사람으로 여겼고, “한대의 사람들이 문장을 짓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오직 사마상여·태사공·유항·양웅이 가장 뛰어났다(漢朝人莫不能爲文, 獨司馬相如太史公劉向揚雄爲之最)”<sup>13)</sup>라고 하여, 漢代의 대표적인 문장가의 한 사람으로 司馬遷을 언급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韓愈 자신도 司馬遷과 마찬가지로 ‘發憤著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남기는데 망설이지 않았다<sup>14)</sup>.

### Ⅲ. “不平則鳴”說의 내용

#### 1. “不平則鳴”의 내용

韓愈의 지기였던 孟郊가 나이 50이 되어서야 과거에 급제하고 강남의 작은 고을 溧陽의 縣尉라는 낮은 관리로 부임하게 되니, 한유는 이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여 그를 위로하여 써준 것이 <送孟東野序>이다. 韓愈의 “不平則鳴”은 바로 이 <送孟東野序>에 나온다. 한유는 이 글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대개 만물은 평온한 상태를 얻지 못하면 운다. 풀과 나무는 본래 소리가 없는 것인데 바람이 그것을 흔들어서 소리 내어 울고, 물도 본래 소리가 없는 것인데 바람이 물 위에서 불어 그것을 흔들어서 소리가 내어 운다. 물이 높이 솟아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그 물을 격동시켰기 때문이고, 물이 세차게 흘러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 물살을 막았기 때문이며,

12) 주 1)과 같은 책, 卷四, <送孟東野序>

13) 주 1)과 같은 책, 卷三, <答劉正夫書>

14) 韓愈는 仲長統이 끝내 영달하지 못하자 發憤著書한 이야기를 실은 <後漢三賢贊>이나 憤世嫉邪를 목적으로 쓴 <雜說>其三 등처럼 현실불만을 주제로 發憤著書한 사람들에 관한 글을 많이 남겼다.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것은 그 밑에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쇠나 돌도 본래 소리가 없지만 어떤 것을 가지고 치기 때문에 소리 내어 우는 것이다. 사람이 말을 하는 데에도 또한 그러하다. 마음 가운데 마지못한 것이 있는 뒤에야 비로소 말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이 노래를 읊을 때에는 그리워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고, 사람이 울 때에는 가슴 아픈 슬픔이 있기 때문이다. 무릇 입에서 나와 소리가 되는 것은 모두 평온한 상태를 얻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소리 가운데 정화로운 것이 말이며, 문사는 말 가운데에서도 정화로운 것이다. 특히 그 잘 우는 자를 골라 그를 빌려서 운다. (大凡物不得其平則鳴。草木之無聲，風撓之鳴；水之無聲，風蕩之鳴。其躍也，或激之；其趨也，或梗之；其沸也，或炙之。金石之無聲，或擊之鳴；人之於言也亦然。有不得已者而後言，其歌也有思，其哭也有懷。凡出乎口而爲聲者，其皆有弗平者乎！……人聲之精者爲言，文辭之於言，又其精也，尤擇其善鳴者，而假之鳴。) 15)

한유는 이 글에서, ‘만물이 평온한 상태를 얻지 못하면 소리를 낸다’, 즉 ‘物不平則鳴’이라는 자연현상에서 출발하여, 사람도 말을 할 때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부득이 한 것이 있는 이후에 말을 한다(有不得已者而後言)’라고 하여 - 여기에서 부득이 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상태인 ‘평온한 상태를 얻지 못한 것(不平)’을 의미 - ‘人不平則鳴’으로 발전하고, ‘人不平則鳴’에서 다시 발전하여 “사람의 소리 가운데 정화로운 것이 말이며, 문학은 말 가운데에서도 정화로운 것이다<sup>16)</sup>. 특히 그 잘 우는 자를 골라 그를 빌려서 운다.(人聲之精者爲言，文辭之於言，又其精也，尤擇其善鳴者，而假之鳴.)”라고 하였다. 문학은 바로 말 가운데에서도 정화로운 것이며, 그 잘 우는 사람, 즉 그 시대의 뛰어난 문인들을 통해서 표현된다. 문인들이 문학을 창작하는 동기가 바로 이 ‘평온한 상태를 얻지 못한 것(不平)’에서 출발하며, 그 내용 또한 ‘평온한 상태를 얻지 못한 것(不平)’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평온한 상태를 얻지 못한 것(不平)’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

15) 주 1)과 같은 책, 卷三

16) 曾子魯, 《韓歐文探勝》, (中國文學出版社, 北京, 1993), 14-15 쪽

해야 할 것인가? ‘不平’이란 말을 글자 그대로 불평이나 불만 혹은 울분으로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여기에 대해 한유는 이 글에서 孟郊와 李翱·張籍에게로 붓을 옮기면서 ‘평온한 상태를 얻지 못한 것(不平)’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현존하는 인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자로서는 孟郊가 비로소 그의 시로써 울고 있다. 그의 詩들은 魏晉시대 사람들의 작품보다 뛰어나며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옛 사람들의 훌륭한 작품에까지도 도달할 것이다. 그 밖의 작품도 漢代 작가의 영역에까지 들어와 있다. 나에게 배우고 있는 문인 중에서는 李翱·張籍이 특히 뛰어나다. 孟郊를 합하여 이 세 사람의 울음이 아말로 진실로 훌륭한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하늘은 그들의 소리를 평화로운 것으로 하여 국가의 번성을 울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몸을 곤궁하게 하고 굶주리게 하여 그들의 마음속을 우수로 차게 해서, 자신의 불행을 스스로 울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其存而在下者, 孟郊東野始以其詩鳴. 其高出魏晉, 不懈而及於古, 其他浸淫乎漢氏矣. 從吾遊者, 李翱張籍其尤也. 三子者之鳴, 信善矣! 抑不知天將和其聲, 而使鳴國家之盛耶? 抑將窮餓其身, 思愁其心腸, 而使自鳴其不幸耶?)

이 글의 내용을 통해 본다면, 작가는 “자신의 소리를 평화로운 것으로 하여 국가의 번성을 울게 할(和其聲, 而使鳴國家之盛)” 수도 있고, 그들의 ‘생활을 곤궁과 기아 속에 두고(窮餓其身)’ ‘그들의 마음속을 우수로 차게 하여(思愁其心腸)’ “스스로 자신의 불행을 울게 할 수도 있다(自鳴其不幸)”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온한 상태를 얻지 못한 것(不平)’을 정밀한 말로 표현한 것이 문사라면 ‘평온한 상태를 얻지 못한 것(不平)’은 화평 혹은 국가의 흥성을 내용으로 한 것과 작가 개인의 불행이나 불평을 내용으로 한 것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한유가 <送孟東野序>에서 중국의 최고의 治世라고 믿었던 堯舜 三代에 咎陶·禹·夔·伊尹·周公 등이 그 체세의 덕을 기리며 크게 울었음을 서술하여 화평의 내용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불평’의 의미가 글자 그대로의 불평뿐만 아니라 화평의 의미도 포함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 錢鍾書 같은 사람도 한유가 말한 ‘불평’이란 ‘울분’ 뿐만 아니라 ‘환락’의 의미도 포함된다고 이해하고 있다<sup>17)</sup>. 즉, 문학작품의 내용에는 화평한 소리로 국가의 번성을 노래한 것과 작가 개인의 불행 혹은 불평을 드러내 쓴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작가의 窮達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즉 顯達한 작가라면 화평의 소리를 낼 것이고, 困窮한 작가라면 그 자신의 불행을 노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유도 孟郊와 李翱·張籍이 뜻을 얻어, 즉 현달하여 그들이 노래하는 ‘不平’이 국가의 번성을 노래하는 화평의 소리이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본다면 詩에는 능통하였으나 아직 현달하지는 못하였다<sup>18)</sup>. 그렇다면 한유가 이야기하고자 한 이 문장의 主旨는 국가의 번성을 노래하는 화평의 소리에 무게가 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본다면 詩에는 능통하였으나 아직 현달하지는 못하였다<sup>18)</sup>. 그렇다면 한유가 이야기하고자 한 이 문장의 主旨는 국가의 번성을 노래하는 화평의 소리에 무게가 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본다면 詩에는 능통하였으나 아직 현달하지는 못하였다<sup>18)</sup>. 그렇다면 한유가 이야기하고자 한 이 문장의 主旨는 국가의 번성을 노래하는 화평의 소리에 무게가 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은 한유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만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 글은 孟郊가 나이 50이 넘어서 고작 작은 고을의 낮은 관리로 발령받은 데에 대한 그 내심의 불만을 위로하고자 한 것이지만, 한유 또한 이 글을 쓸 당시 吏部의 시험에 낙방된 뒤여서 자신의 실의 또한 매우 깊었다. 따라서 한유는 孟郊를 위로하는 말 속에 자신의 실의를 함께 기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送孟東野序> 이외의 작품에서도 불만이나 울분에 의해 지어진 작품이 더욱 좋아진다는 견해를 韓愈는 자주 피력하였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불행한 운명에 처한다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 마음속에 불평이 쌓여 필연적으로 소리를 낸다. 韓愈도 작가의 처지와 작품은 설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내심의 고통에서 ‘불평을 토로한(鳴不平)’ 문학작품이 훌륭해진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피력한 글이

17) 李鍾漢, 《韓愈 散文의 分析的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154쪽

18) 주 11)과 같은 책, 195쪽

<荊潭唱和詩序>이다.

대저 평화스러운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는 담박하지만, 근심스러운 생각에서 나오는 소리는 오묘하고 정묘하다. 기뻐하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말은 훌륭해지기가 어렵지만 곤궁한 가운데서 나오는 말은 좋아지기가 쉽다. 이 때문에 문장을 짓는 것은 항상 초야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왕공이나 귀인의 경우는 기세 있고 득의하여, 타고난 본성이 문장 짓는데 능하거나 애호하지 않으면 창작할 겨를이 없게 된다.(夫和平之音淡薄, 而愁思之聲要妙; 歡愉之辭難工, 而窮苦之言易好也, 是故文章之作, 恒發于羈旅草野. 至若王公貴人, 氣滿志得, 非性能而好之, 則不暇以爲)<sup>19)</sup>

물론 여기에서 말한 “근심스러운 생각에서 나오는 소리(愁思之聲)”나 “곤궁한 가운데서 나오는 말(窮苦之言)”은 <送孟東野序>에서 제기한 “自鳴不幸”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sup>20)</sup>. 韓愈는 ‘근심스러운 생각에서 나오는 소리와 곤궁한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 ‘평화스러운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와 기뻐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말’보다 더욱 좋아지기 쉽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이 말은 근심과 고통으로 쌓인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 평온한 감정이거나 기쁜 감정을 표현한 작품보다 더욱 더 예술적인 감동을 준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곤궁함을 몸소 체험한 작가가 고통을 체험하지 못한 작가보다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묘하고 정묘하며’ ‘좋아지기 쉬운’ 작품들은 대부분이 ‘초야에 떠돌아다니는 사람’과 ‘곤궁하여 뜻을 얻지 못한 문인들’의 손에서 나온 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왕공이나 귀인의 경우는 기세 있고 득의하여, 타고난 본성이 문장 짓는데 능하거나 애호하지 않으면 창작할 겨를이 없게 된다(至若王公貴人, 氣滿志得, 非性能而好之, 則不暇以爲)”고 하여, 뜻을 얻은 사람들이 왜 훌륭한 작품을 남기지 못하는 지에 대한 분석도 함께 거론하여, 훌륭한 작품이 곤궁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피력하였다.

19) 주 1)과 같은 책, 卷三

20) 주 16)과 同 15 쪽

‘곤궁한 가운데서 나오는 말(窮苦之言)’이 더욱 좋아진다는 韓愈의 견해는 <柳子厚墓誌銘>의 말을 보면 더욱 여실히 증명된다.

子厚가 쫓겨나 있었던 것이 오래되지 않고 곤궁함이 극도에 달하지 않고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 되었더라면, 그는 학문과 문장에는 틀림 없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을 것이니 그렇다면 반드시 그의 문장은 지금 처럼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을 것임에 의심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然子厚斥不久, 窮不極, 雖有出於人, 其文學辭章, 必不能自力以致必傳於後如今, 無疑也.)<sup>21)</sup>

柳宗元이 오랜 기간 동안 좌천되어 정치상의 실의에 의한 곤궁한 처지가 극도에 달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韓愈는 柳宗元이 불우한 운명과 곤궁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글을 쓰는데 발분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진실 되게 반영하였기 때문에 후세에까지 전할 만한 좋은 글을 남길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韓愈는 작가가 겪은 고통이 강하고 오래될수록 작품이 더욱 좋아진다고 본 것이다.

## 2. ‘善鳴者’에 대한 분석

韓愈는 <送孟東野序>에서 음악은 八音을 빌려서 하늘은 四時를 빌려서, 사람은 文辭를 빌려서 불평의 소리를 낸다고 전제하면서 唐虞三代에 서부터 자신이 살았던 唐代까지 불평을 잘 표현하였던 善鳴者들을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다.

唐堯·禹舜 시대에는 咎陶와 禹가 잘 우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을 빌려 울었다. 夔는 文辭로써 울지는 못했으나 스스로 韶를 빌려서 울었다. 夏나라 때에는 五子が 노래로 울었고, 伊尹은 殷나라에서 울었으며 周公은 周나라에서 울었다.

21) 주 1)과 같은 책, 卷七

무릇 《詩經》·《書經》 등 六藝에 실린 것들은 모두 잘 운 것들이다. 周나라가 쇠락하자, 공자의 무리들이 울었는데, 그 소리는 크고도 멀리까지 미쳤다. 옛 서적에 ‘하늘이 장차 선생님을 목탁으로 삼으려 하는구나’라고 하였으니, 믿지 못한단 말인가? 주나라 말엽에 이르러서는 莊周가 황당한 文辭로써 楚나라에서 울었다. 초나라는 큰 나라였는데 망할 무렵에 굴원이 울었다. 臧孫辰·孟軻·荀卿 등은 道로써 울은 자들이고 楊朱·墨翟·管夷吾·晏嬰·老聃·申不害·韓非·慎到·田駢·鄒衍·尸佼·孫武·張儀·蘇秦 등의 무리들은 모두 術로써 울었다. 그리고 秦나라가 흥성하자 李斯가 울었으며, 漢나라 때에는 司馬遷·司馬相如·揚雄 등이 가장 잘 운 자들이었다. ……당나라가 천하를 차지하고 나서는 陳子昂·蘇源明·元結·李白·杜甫·李觀 등이 모두 자신이 잘 하는 것으로써 울었다. 현재 살아있으면서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東野 孟郊가 비로소 시로써 울고 있다. 그는 魏·晉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며, 게을리 하지 않으면 옛 사람들의 수준에 미칠 수 있겠고, 그 밖의 작품들은 漢代 작가의 영역에까지 들어와 있다. 나에게서 배우는 자들로서 李翱과 張籍이 가장 뛰어나다. 이 세 사람의 울음은 진실로 훌륭하다.

其在於唐虞 咎陶禹其善鳴者也. 而假之以鳴, 夔弗能以文辭鳴, 又自假於韶以鳴. 夏之時, 五子以其歌鳴, 伊尹鳴殷, 周公鳴周. 凡載於詩書六藝, 皆鳴之善者也. 周之衰, 孔子之徒鳴之, 其聲大而遠. 傳曰, 天將以夫子爲木鐸, 其弗信矣乎? 其末也, 莊周以其荒唐之辭, 鳴於楚, 楚大國也. 其亡也, 以屈原鳴. 臧孫辰·孟軻·荀卿, 以道鳴者也, 楊朱·墨翟·管夷吾·晏嬰·老聃·申不害·韓非·慎到·田駢·鄒衍·尸佼·孫武·張儀·蘇秦之屬, 皆以其術鳴, 秦之興, 李斯鳴之, 漢之時, 司馬遷·相如·揚雄, 最其善鳴者也. ……唐之有天下, 陳子昂·蘇源明·元結·李白·杜甫·李觀, 皆以其所能鳴. 其存而在下者, 孟郊東野, 始以其詩鳴, 其高出晉魏, 不懈而及於古, 其他浸淫乎漢氏矣, 從吾游者, 李翱張籍其尤也, 三子者之鳴信善鳴矣.

한유가 언급한 각 시대를 대표하여 울었던 善鳴者들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가 있다.

첫째, 앞에서 이미 “不平則鳴”에는 국가의 번성을 노래하고 칭송한 화평의 울음과 작가 개인의 불행을 노회한(自鳴不幸) 것의 두 종류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유가 이 글에서 거론한 善鳴者도 이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컨대 咎陶·禹·夔·伊尹·周公 등과 같은 사람들은 국가의 번성을 노래하고 칭송한 화평의 울음을 내었던 사람들에 속하고, 屈原·司馬遷·李白·杜甫 같은 사람들은 개인의 불행을 노래한(自鳴不幸) 사람들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咎陶·禹·夔·伊尹·周公 등은 현달한 신분으로 국가의 번성과 화평을 노래했다면, 屈原·司馬遷·李白·杜甫는 곤궁한 처지에서 개인의 불우나 국가의 재난을 노래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善鳴者들 가운데 문학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여 울었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인들이 최고의 治世라고 믿었던 堯舜 三代에는 咎陶·禹가 문사로, 夔는 음악으로, 五子是 노래로 울었고, 伊尹·周公 등이 그 치세의 덕을 기리며 크게 울었다. 周나라가 쇠하였던 때에는 孔子와 그 문인들이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며 인의도덕의 학설로 크게 울었으며, 臧孫辰·孟軻·荀卿 등도 그들의 도로써 울었고, 楊朱·墨翟·管仲 등은 術로써 울었다. 秦나라 때에는 李斯가, 漢나라 때에는 司馬遷을 비롯하여 司馬相如·揚雄 등이 그 시대를 대표하여 자신들의 문사로 크게 울었다. 唐代에 들어와서는 陳子昂·蘇源明, 元結, 李白·杜甫, 李觀 등이 제각기 타고난 재주인 시로써 울었다. 그 시대의 출중한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익히 배운 다양한 형식으로 자신이 처한 시대생활을 반영하여 크게 울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유가 말한 ‘不平則鳴’은 사실상 문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비문학적인 문장이나 음악·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두루 포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문학이든 학술이든 음악이든 어느 방면에서든지 시대면모를 반영할 수 있고, 또 어느 한 영역에서 잘 우는 자가 출현할 수 있다<sup>22)</sup>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不平則鳴”의 이론은 문학 창작만이 아닌 문예 전반에 관한 창작이론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로, 한유가 堯舜시대에서부터 자신이 살았던 唐代까지의 각 시대를

22) 주 16)과 同 15 쪽

대표하는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유독 六朝 시대의 문인에 대해서만 한 사람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물론 한유가 이 글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sup>23)</sup>, 六朝의 문인에 대해서만은 실명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다만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는 점에서 다소 의문이 생긴다.

그 후 魏·晉 시대에도 우는 자들이 옛날 사람들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끊이지는 않았다. 그 가운데에서 웅장한 것들도 그 소리는 맑지만 경박하고, 그 음절은 빠르고 급하며, 그 文辭는 음란하고 슬프며, 그 뜻은 느슨하고도 방자하고, 그 표현은 난잡하고 문장으로서의 아름다움이란 찾아 볼 수가 없다. 어찌 하늘이 그 德을 주하게 여겨 돌보지 않은 탓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하여 소리를 잘 내는 자들로 하여금 소리를 내게 하지 않았는가?(其下魏晉氏, 鳴者不及於古, 然亦未嘗絕也. 就其善鳴者, 其聲清以浮, 其節數以急, 其辭淫以哀, 其志弛以肆, 其爲言也, 亂雜而無章, 將天醜其德, 莫之顧邪? 何爲乎不鳴其善鳴者也?)

한유는 이 글에서 魏晉 시대의 문학에 관해서 철저히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점은 한유가 유학을 숭상하고 유가의 道統을 계승한 자로 자칭하며, 復古를 주장하면서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駢儷文을 반대하여 새로운 산문운동, 즉 고문운동을 이끌었던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魏晉시대를 포함한 六朝시대에는 한유가 그렇게 비판해왔던 불노사상이 유행하면서 유교가 크게 부진했고 변려문이 극성하였던 시대적 특징이 있었다.

한유는 “삼대·양한의 글이 아니면 감히 보지 않았고, 성인의 가르침이 아니면 감히 마음에 두지 않았다(非三代兩漢之書不敢觀 非聖人之志不敢存)”<sup>24)</sup>라 하였고, “어떤 사람이 ‘문장을 쓸 때에는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

23) 林田愼之助, 《中國中世文學評論史》<韓愈における發憤著書の說>, 創文社, 1979, 500-501쪽. 林田愼之助 교수는 당대의 善鳴者 가운데 唐代 고문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한 獨孤及·梁肅 같은 사람 대신에 蘇源明이 거론된 데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다.

까?’라고 물으면, 반드시 ‘마땅히 고대의 성현을 본받아야 합니다 或問 爲文宜何師? 必謹對曰, 宜師古聖賢人)’”<sup>25)</sup>라 하여, 先秦 시대의 문장과 儒家의 사상을 신봉하면서 육조시대에 절정에 이르렀던 불노상상을 철저히 비판하였다. 한유는 <原道>에서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보다 자세히 피력하고 있다.

周나라 道가 쇠하고 공자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 秦나라 때에는 책을 불태우고, 漢나라 때에는 황제와 노자(黃老)의 사상이 유행하였고, 晉·宋·齊·梁·魏·隋 나라 사이에는 불교가 흥성하였다. 인의도덕을 말하던 이가 楊子의 학설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곧 墨子의 학설에 들어가고 노장의 설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곧 불교에 들어간다. 저기(양자·묵자·노자·불가)에 들어가면 곧 반드시 여기(유교)에서는 나오게 된다. 들어간 이는 그것을 주인으로 여기고 나온 이는 그것을 노예로 여긴다. 들어간 학설에는 순응하여 따르고 나온 학설에는 이를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周道衰孔子沒, 火于秦, 黃老于漢, 佛于晉魏梁隋之間, 其言道德仁義者, 不入于楊, 則入于墨, 不入于老, 則入于佛, 入于彼, 必出于此, 入者主之, 出者奴之, 入者附之, 出者汙之) <sup>26)</sup>

周나라 말, 성인의 도가 쇠하고 또 유교에서 성인으로 여기던 공자마저 세상을 떠났다. 그 뒤 秦나라 시황제에 와서는 유교의 경전을 불사르고 유생들을 생매장하는 이른바 분서갱유라는 비극이 있었다. 그리고 漢代에 와서는 黃老의 학이라고 하여 도교의 신선술이 세상에 널리 유행하였다. 이어 後漢의 明帝 때에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晉·宋·齊·梁·魏·隋에 이르기까지 세상에는 불교사상으로 가득차면서 유가의 사상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韓愈가 <原道>를 쓴 목적이 바로 동한에서 당대까지, 특히 육조시대에 유행한 佛敎와 道敎를 배척함으로써 유학의 인의도덕을 회복하고자 한 것

24) 주 1)과 같은 책, 卷三 <答李翱書>

25) 주 1)과 같은 책, 卷三, <答劉正夫書>

26) 주 1)과 같은 책, 卷一

이다. 이처럼 <原道>가 ‘유학복고운동’과 ‘고문운동’의 강령성의 문장<sup>27)</sup>임을 감안 한다면, 육조시대를 철저히 부정한 이유를 쉽게 이해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인 문제 이외에, 韓愈가 육조시대의 문인을 거론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변려문에 대한 비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舊唐書·韓愈傳》에 “한유는 늘 魏·晉 이후에 문장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對偶에 얽매어 유가경전의 뜻과 사마천·양웅의 풍격이 더 이상 떨쳐 일어나지 못한다고 여겼다. 때문에 한유는 문장을 쓸 때 힘써 魏·晉 이후 유행한 변려체의 문풍을 반대하였다.(常以爲自魏晉已還,爲文者多拘偶對,而經誥之指歸,遷雄之氣格,不復振起矣.故愈所爲文,務反近體)”라고 하여, 육조의 문풍에 대한 韓愈의 견해가 잘 나타나 있다.

한유는 자신이 禮部의 進士科 시험과 吏部의 博學鴻辭科 시험에 각기 세 번씩이나 떨어졌던 가중 중요한 원인이 바로 자신이 주장하는 고문과 시험에 응시할 때에 쓴 변려문과의 충돌이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한유는 <答崔立之書>에서 당시의 심경을 “시험에 참가하였다가 물러나 내 자신이 쓴 시험문장을 꺼내어 읽어보니, 바로 (舞樂이나 해학을 전업하는) 배우들의 말과 같아서 부끄러워 얼굴이 달아오르고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이 수개월이나 되었습니다(退自取所試讀之,乃類俳優者止辭顏忸怩而心不寧者數月)”<sup>28)</sup>라고 고백하였다. 그것은 시험응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지향하던 고문을 버리고 변려문을 써야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이다. 이러한 관점은 그의 <與馮宿論文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저는 오랫동안 문장을 지어왔는데, 언제나 스스로 생각해 보면 훌륭한 문장인데 다른 사람은 그때 마다 꼭 시원찮다 하였고, 어느 정도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시원찮다고 하였으며, 또 아주 잘되

27) 孫昌武, 《愈詩文選評》, (上海古籍出版社, 2002), 105쪽

28) 주 1)과 같은 책, 卷三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아주 시원찮다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세속의 유행에 응해서 세속적인 문장을 지어놓고 보면 자신에게는 부끄러운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훌륭하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스스로 조금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조금 칭찬하고, 크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고문이 진실로 현세에 어떻게 유용한 것인지. 그러나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나 알아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僕爲文久,每自則意中以爲好,則人必以爲惡矣.小稱意,人亦小怪之,大稱意,即人必大怪之也,時時應事作俗下文字,下筆令人慙,及示人,則人以爲好矣.小慙者亦蒙謂之小好,大慙者即必以爲大好矣,不知古文直何用於今世也.然以諛知者知耳.)<sup>29)</sup>

물론 이 글은 한유가 지금의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지만 언젠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고문’의 길로 나아가기로 선언한 문장이다. 그러나 이 문장 속에 “때로는 세속의 유행에 응해서 세속적인 문장을 지어놓고 보면 (時時應事作俗下文字)”이란 말의 ‘세속적인 문장(俗下文字)’이란 바로 時文, 즉 당시까지 널리 유행하고 있던 일종의 변려문을 지칭한 것이다. 즉 자신에게는 변려문으로 지은 문장이 부끄러운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스스로 조금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조금 칭찬하고, 크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크게 칭찬하였다는 것이다. 韓愈가 당시 유행하던 변려문의 문풍을 얼마나 강하게 비판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한유는 육조시대에 유행한 -자신이 살고 있던 당대에까지 그 여파가 미쳤던- 변려문을 철저히 반대하였기 때문에 육조시대의 문인에 대해서만은 한 사람도 거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韓愈가 변려문이 유행하였다는 시대적 특징만으로 그 많은 문인들을 모두 부정해버렸다면, 이것은 그의 편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유의 다른 글을 통하여 육조시대의 문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한 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한유의 <遷士> 詩를 살펴보자.

逶迤抵晉宋      오랫동안 이어져 동진·유송 시기에 와서,

29) 주 1)과 같은 책, 卷三

氣象日凋耗	그 기상이 나날이 시들어 갔다.
中間數鮑謝	그 가운데에서 포조와 사령운이 뛰어났으니,
比近最清奧	그 시대의 시인들에 비해서 가장 청신하고 오묘하다.
齊梁及陳隋	제와 양 그리고 진과 수의 시기에는
衆作等蟬噪	못 작품들이 매미가 시끄럽게 우는 것과 같았다.

이 <遷士> 詩는 元和 元年(806) 韓愈가 鄭餘慶에게 孟郊를 추천하기 위해 쓴 시이다. 韓愈는 이 <遷士> 시에서 중국시에 대한 역사를 개괄적으로 서술해놓고 있어, 이 <遷士> 시를 통하여 한유가 중국의 역대시를 어떻게 이해하였나를 파악할 수가 있다. 위에서 인용한 부분은 魏晉에서 隋에 이르기까지의 詩史에 대한 평가이다. 여기서도 六朝 시대의 시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한유는 변려문이 유행하였던 “제와 양 그리고 진과 수 시기에는(齊梁及陳隋) ‘못 작품들이 매미가 시끄럽게 우는 것과 같았다(衆作等蟬噪)’”라고 하여 강한 불만을 드러내었고, 晉·宋의 詩에 대해서도 “그 기상이 나날이 시들어 갔다(氣象日凋耗)”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鮑照와 謝靈運에 대해서만은 긍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鮑照와 謝靈運 두 사람은 다 정치적으로 불운을 겪으면서 격분과 불만이 있었고, 또 그러한 울분의 감정을 시를 통해 표출하였기 때문에 한유 자신과 유사한 면이 있어<sup>30)</sup> 그들에 대해 특별히 공감하였을 지도 모른다.

<送王舍秀才序>에서도 六朝 시대의 陶淵明이나 阮籍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나는 어렸을 때 <취향기>를 읽고, 은거한 사람은 세속에 얽매이는 바가 없을 것인데도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괴이하게 여겼다. 어찌 진정으로 술 맛에 뜻을 두었겠는가? 그러나 완적과 도잠의 시를 읽고서야 이에 그들이 비록 오만하게 세상과 접촉하지 않지만 그러나 또한 그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없거나 혹은 세상사의 시비에 감발되어

30) 張少康, 《中國文學理論批評史教程》, (北京大學出版社, 1999), 197 쪽

이에 술에 의탁하여 은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吾少時讀醉鄉記私怪隱居者無所累於世而猶有是言豈誠旨於味邪?既讀阮籍陶潛詩乃知彼偃蹇不欲與世接然猶未能平其心或爲事物是非相感發於是有託而逃焉者也)

사실 陶淵明의 <桃花源>이나 阮籍의 <詠懷> 같은 시들은 표면적으로는 세상을 피하여 은둔을 노래한 작품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평온하지 않아(未平其心)” “세상사의 시비에 감발되어(爲事物是非相感發)” 나온 불행의 울음으로, 다만 표현이 함축적이고 隱晦할 뿐<sup>31)</sup>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도연명과 완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한유는 육조시대의 문학 전반에 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鮑照와 謝靈運·陶淵明과 阮籍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韓愈가 <送孟東野序>에서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도 자신이 그 시대적 특징을 비판해왔던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겠지만, “맹교(孟郊)가 비로소 시로써 소리를 내었다. 그는 위(魏)·진(晉)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며……나에게서 배운 자들로서 이고(李翱)와 장적(張籍)이 가장 뛰어나다. 이 세 사람의 소리는 진실로 훌륭하다.(孟郊東野始以其詩鳴其高出晉魏, ……從吾游者, 李翱張籍其尤也, 三子者之鳴信善鳴矣.)”라고 한 점을 미루어 보아, 당시 자신을 따르던 孟郊·李翱·張籍이 육조시대의 시인들보다 뛰어난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아마 육조시대의 善鳴者들 가운데 鮑照와 謝靈運·陶淵明과 阮籍 같은 사람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였다면, 과연 孟郊를 “위(魏)·진(晉)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孟郊東野, 始以其詩鳴, 其高出晉魏)”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31) 주 16)과 同 16 쪽

## IV. 결 론

문예창작은 작가의 곤궁한 처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韓愈의 “不平則鳴”說은 韓愈의 독창적인 이론이라기보다는 司馬遷의 ‘發憤著書說’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화되고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司馬遷의 ‘發憤著書說’이나 韓愈의 “不平則鳴”說은 다 文과 현실문제와의 관계를 천명한 현실주의 문학이론이라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作家의 현실 참여를 중시한 이 문예이론은 현실반영과 현실비판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할 수 있다.

韓愈는 “不平則鳴”說에서 “자신의 소리를 평화로운 것으로 하여 국가의 번성을 올게 할(和其聲, 而使鳴國家之盛)” 수도 있고, “스스로 자신의 불행을 올게 할 수도 있다(自鳴其不幸)”고 하여 ‘不平’의 내용을 화평 혹은 국가의 흥성을 내용으로 한 것'과 작가 개인의 불행이나 불평을 내용으로 한 것 두 가지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韓愈는 ‘근심스러운 생각에서 나오는 소리와 곤궁한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 ‘평화스러운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와 기뻐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말’보다 더욱 좋아지기 쉽다고 생각하여 ‘오묘하고 정묘하며’ ‘좋아지기 쉬운’ 작품들은 대부분이 ‘초야에 떠돌아다니는 사람’과 ‘곤궁하여 뜻을 얻지 못한 문인들’의 손에서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뜻을 얻지 못하고 곤궁하여 초야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과 빈번하게 접촉하면서 사회생활의 실체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사회현실에 대한 진지한 감정을 작품 속에 반영할 수 있었고, 왕공이나 귀인처럼 때를 얻은 사람들이 문학창작을 여업으로 여기던 것과는 달리 문학창작을 본업으로 삼아 시간과 정력을 다하여 창작에 매진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다고 보았을 것이다.

<送孟東野序>에서 한유가 거론한 ‘善鳴者’를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 한유가 거론한 善鳴者에는 국가의 번성을 노래하고 칭송한 화평

의 울음과 개인 혹은 국가의 불행을 노해한(自鳴不幸) 것의 두 종류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국가의 번성을 노래하고 칭송한 화평의 울음을 내었던 사람으로는 咎陶·禹·夔·伊尹·周公 같은 사람들을 들 수 있고, 개인의 불행이나 불평을 노해한 사람들로는 屈原·司馬遷·李白·杜甫 같은 사람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善鳴者들 가운데 문학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여 울었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각 시대의 출중한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익히 배운 다양한 형식으로 자신이 처한 시대생활을 반영하여 크게 울었음을 열거하고 있어, 한유가 말한 ‘不平則鳴’은 사실상 문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비문학적인 문장이나 음악·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두루 포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不平則鳴”의 이론은 문학창작만이 아닌 문예 전반에 관한 창작이론으로 보아야 한다.

끝으로 善鳴者들 가운데 六朝시대의 문인들만은 한 사람도 거론하지 않았던 원인을 추론해보았다. 유학을 숭상하고 復古를 주장하면서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駢儷文을 반대하여 고문운동을 이끌었던 韓愈는 불노사상이 유행하면서 유가사상이 크게 부진했고 변려문이 극성하였던 六朝시대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善鳴者들을 상세히 거론하면서도 유독 六朝시대만은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유가 육조시대의 문학 전반에 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鮑照와 謝靈運·陶淵明과 阮籍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韓愈가 <送孟東野序>에서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거론하지 않았던 것은, 六朝 시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외에, 당시 자신을 따랐던 孟郊·李翱·張籍이 육조시대의 시인들보다 뛰어난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參考文獻〉

- 韓愈, 《韓昌黎文集校注》, 臺北, 世界書局, 1982
- 司馬遷, 《史記》, 禮文印書館, 臺北
- 班固, 《漢書》, 禮文印書館, 臺北
- 王久烈等, 《文心雕龍》, 天龍出版社, 1981
- 劉向 等, 《舊唐書》, 서울, 景仁文化社 編
- 中國唐代文學學會韓愈研究會編, 《韓愈研究》第一輯, 中州古籍出版社, 1996
- 曾子魯, 《韓歐文探勝》, 中國文學出版社, 北京, 1993
- 張少康, 《中國文學理論批評史教程》, 北京大學出版社, 1999
- 孫昌武, 《愈詩文選評》, 上海古籍出版社, 2002
- 成復旺, 《韓愈評傳》, 廣西教育出版社, 1997
- 鐘林斌, 《韓愈傳》, 遼海出版社, 1998
- 閻琦 周敏, 《韓昌黎文學傳論》, 三秦出版社, 2003
- 吳小林, 《唐宋八大家》, 安徽人民出版社, 合肥, 1984
- 關永禮主編, 《唐宋八大家鑑賞辭典》, 北岳文藝出版社, 1989
- 程千帆 吳新雷, 《兩宋文學史》, 上海古籍出版社, 1991
- 成復旺 等, 《中國文學批評史》,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1979
- 敏澤, 《中國文學理論批評史》,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81
- 周勛初, 《中國文學批評小史》, 崧高書社, 臺北, 1985
- 林田愼之助, 《中國中世文學評論史》〈韓愈における發憤著書の說〉, 創文社, 1979
- 李鍾漢, 《韓愈 散文의 分析的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 權鎬鐘, 《歐陽修詩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 中文提要 >

“不平則鳴”的理論(也包括非文學的文章和著作)是非常有價值的韓愈文學理論之一。

韓愈的“不平則鳴”不僅是對孔子“可以怨”和司馬遷“發憤著書”說的繼承和發揮,而且給後來許多文學理論批評家產生了很大影響,使之成爲中國古代的一個重要文學思想傳統。

韓愈在<送孟東野序>中指出“不平則鳴”是一個宇宙間的普遍現象,不論在自然界還是在社會生活中,不管是‘人’還是‘物’,只要遇到“不平”之事就都要“鳴”。韓愈提出的“不平則鳴”是關於作家生平遭遇與創作之路有所密切的關係和見解而產生的。他指出了文學作品的創作和作者所處的社會環境有不可分的關係,因此,王朝時期受抑壓文人把“不平則鳴”理論作爲表現出強烈不滿和反抗的心情的一大工具。

韓愈對“不平則鳴”的不論述,他特別指出了真正有“不平”而“善鳴者”,這不是志滿氣得的王公貴人,而是羈旅草野之士。羈旅草野之士把個人的親身遭遇·現實的矛盾和內心的積鬱都熔鑄于作品,這樣才能够寫出內容充實·感情充沛·感人至深,巨大感染力的好作品。

韓愈對六朝時期的鮑照·謝靈運·陶淵明·阮籍等持肯定的態度,但是對南朝齊梁以後文學的評價大概有否定的態度,“逶迤抵晉宋,氣象日凋耗。中間數鮑謝,比近最清奧,齊梁及陳隋,衆作等蟬噪”。因此韓愈雖然指出了各個時代的優秀詩人·作家--善鳴者,但對六朝時代的善鳴者却連一個人也不言及。

주제어: 韓愈, 不平的鳴, 發憤著書, 送孟東野序, 善鳴者, 羈旅草野之士